

영민이의 꿈



안 명 기
시인·수필가

〈지난 호에 이어〉

아내와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 2만이 넘는 닭들에게 사료를 주는 일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아침 8시쯤 되면 성냥갑만한 컨테이너로 들어가 아내가 지어놓은 아침을 먹고는, 9시도 되기 전에 아내와 함께 닭장으로 향합니다. 깨지지 않게 한 알 한 알 계란을 조심스럽게 걷어냅니다.

그 후 알 선별하기, 계분치우기, 병아리 모이 주고 물 주기, 영양제 투여하기, 부화 시키기, 소독하기 등등 하루해가 너무 짧아 달이 중전에 오를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농장일은 해도 해도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받는 품삯은 아내와 둘이 합쳐서 백여만원 남짓, 생활하기 빠듯합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생활, 그래도 영민이가 무럭무럭 아무 탈 없이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힘든 것은 일순간에 날아갑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영민이는 그 흔한 유치원도 가보지 못하고 곧바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비록 유치원은 보내지 못했지만,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글은 늦게 깨우쳤지만, 영민이는 책 읽기를 무척 좋아한 덕분에 2학년이 시작되자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교내 글쓰기 상은 물론 각종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4시가 막 지날 때입니다. 내가 한쪽 계사에서 사료를 주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 다급한 비명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옵니다.

“아아아악!”

순간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비명소리가 들려온 옆 계사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새파랗게 질린 아내가 작은 테일을 타고 굴러오던 자동 사료 기기를 혼신의 힘으로 막고 서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료 급여기기 또한 ‘기기깅’ 하는 요란한 굉음을 내며 앞으로 전진하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으으으..... 빨리.”

나는 대답할 시간도 없이 급히 전원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기기가 멈춰 섭니다.

“으으으.”

순간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빨리 기계로 달려가 후진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기계가 덜컥하며 뒤로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또 다시 들려오는 비명.....

“아아아악!”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가난하다는 핑계로 이 마을 저 마을, 이 학교 저 학교로
많이 이사를 다닌 것이
영민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방황하는 계기가 된듯합니다.

“어보! 괜찮아?”

아내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닭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자동으로 사료를 주던 자동 급여기기가 레일을 타고 온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욱중한 기기에 발등이 깔렸던 것입니다.

순간 아내는 통증을 느낄 틈도 없이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혼신의 힘으로 욱중한 기기를 밀며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급히 아내를 틀쳐 업고 동네 보건소로 달려갔습니다. 발등은 움푹 패어 뼈가 허영게 보였습니다. 대충 응급조치를 끝내고, 다시 의원으로 가서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결국 일을 할 수 없어 농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거할 곳이 없어 우리는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민이가 2학년 2학기 때 일입니다. 영민이는 전교생이 20명 남짓한 산골 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산전을 놀이터 삼고, 책을 벗 삼아 뛰어놀던 영민이는, 4학년이 되어서 통일부 장관 주최 ‘경기도 통일 글짓기 대회’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나와 아내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먹고살기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각종 과수농장을 전전궁궁하며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던 시골에도 투기 바람이 불었던 것입니다. 수도권에 재개발 바람이 불자, 돈 있는 서울 사람들이 시골의 포도농원 배 농원 할 것 없이 마

구잡이로 사들였던 것입니다.

또다시 이삿집을 꾸릴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아내는 눈물을 펄펄 쏟아냅니다.

“미안해, 영민이 엄마. 내가 너무 못나서.”

“.....”

이를 후, 전에 살던 마을에서 잠시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데, 대리로 운영해줄 책임자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부터 우리 부부의 성실함을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앞뒤를 생각할 여유가 없던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민이 5학년 신학기가 막 시작되던 4월의 일입니다. 영민이는 혼자 스스로 전학 수속을 밟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나가서 밤 2시쯤 되어 돌아오는 우리 부부는 파김치가 되어 쓰러지기가 바깥입니다.

영민이에게는 이제 두 돌이 다가오는 동생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우유를 먹고, 기저귀를 갈고, 놀이방에 데려다주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동생을 데리고 옵니다.

물론 우리 부부가 늦게 가는 탓에, 우유와 기저귀는 물론 동생 목욕까지 시켜서 재웁니다.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식당 주인이 식당을 파는 바람에 또다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영민이 졸업을 몇 달 앞둔 6학년 2학기 때 일입



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더욱 쪼그라들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후 다시 한 번 중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전학 수속은 영민이 혼자 해결했습니다. 몇 번의 전학을 했지만 잘 적응했고, 성적은 상위 10%를 유지했습니다. 특히나 글쓰기에서는 대부분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영민이만 생각하면 전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운이 펴졌 습니다. 적어도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은 학교에서까지는 그렸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차츰 성적이 떨어지더니 급기야 1학년 말에는 밑바닥을 기어 다닙니다. 처음에는 한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영민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일어서다 말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뭐냐? 말해 보거라.”

“저어.....”

“무슨 말인데?”

“말씀 드리면 혼낼실 거죠?”

“이놈아, 들어봐야 혼낼지 칭찬할지 판단하지.”

“말씀 드릴게요.”

영민은 무슨 큰 각오를 하는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입을 엽니다.

“아버지, 저 노래할래요. 노래하도록 허락해주세요.”

“노래? 노래타니 무슨 노래?”

“가수 말이에요. 힙합가수.”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수? 네가 노래 부르는 가수가 되겠다고?”

“네, 아버지. 허락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 들은 말이 아닙니다. 기절할 뻔했습니다. 나는 아무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영민이는 벌써 1년 전부터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힙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공부는 뒷전이었으니, 잘하길 바란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려웠던 것입니다.

무엇이 성공인지는 모르지만, 흔히 사람들은 공부 꼭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나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공부는 더욱 그러하다고 봅니다. 20~3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본다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가난하다는 핑계로 이 마을 저 마을, 이 학교 저 학교로 많이 이사를 다닌 것이 영민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방황하는 계기가 된 듯합니다. 오십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난이 이렇게 한스러울 때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 어떻게 지도해야 할니까? 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답을 구해봅니다.

(지금은 마음을 잡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좋은 결과 있길 기도합니다.)